

SANJO for Violin & Piano

- I. 중중모리
- II. 언모리
- III. 휘모리

작품 개요

이 곡은 작곡자가 34세 때인 1955년 4월 5일 작곡하여 4월 12일 배재 대강당에서 열린 <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>에서 바이올린 신상철, 피아노 구연소에 의해 초연되었다. 이 곡은 처음에 바이올린 소나타로 작곡했다가 제목을 바꾼 것이다.

작곡자의 해설

중중모리-언모리-휘모리-세산조시 장단으로 된 이 곡은 Do가 생략된 6음음계, Sol과 Fa가 생략된 5음음계, Mi와 Si가 생략된 5음음계, Fa와 Do가 생략된 5음음계를 사용했고, 부가화음, 4도화성, 특히 Violin에 있어서 완전4도 음정의 병행법 등을 활용한 작품으로서 토착화의 본격적 시도를 한 작품이다.

작품 해설

「Sanjo for Violin & Piano」는 전3악장으로 작곡된 작품인데, 이 작품은 그의 음악작품이 점진적으로 토착화의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여진다.

즉, 전3악장이 중중모리(12/8박자)→언모리(6/8박자)→휘모리(4/4박자)등으로 작품의 속도배열 자체부터 토착화의 활성화적 용태가 보이고 있다. 뿐만 아니라, 각 악장에 쓰여진 음계가 또한 그러하다.

제1악장: Do가 생략된 6음음계 즉, La,Si,Re,Mi,Fa,Sol.

제2악장: Fa와 Sol이 생략된 5음음계 즉, La,Si,Do,Re,Mi.

이 제2악장에서 다른 또 하나의 음계가 쓰여져 있는데, 즉, La,Si,Re,Mi,Sol로 된 5음음계가 곧 그것이다.

제3악장: Mi와 Si가 생략된 5음음계 즉, Sol,La,Do,Re,Fa.

No.

SANJO for Violin & Piano.

La, Un-yung
1955

MM. J. = 48 (chung-chung-mo-ri)

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in 12/8 time. It consists of four systems of music. The first system shows the violin and piano parts with dynamics *mf*. The second system shows the violin and piano parts with dynamics *mp* and *pp*. The third system shows the violin and piano parts with dynamics *p*, *mp*, and *mf*, and includes octaves (8) and a trill (8-7). The fourth system shows the violin and piano parts with dynamics *mp* and *mf*, and includes octaves (8) and a trill (8-7).